



◆ 제 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진흥상수상자

宋相庸교수 (한림대 인문대 사학과)

과학기술 대중화에 앞장 서

제 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부문은 지난 30년간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기술과 사회 등 과학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했으며,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해 온 송상용(宋相庸·60세)한림대 인문대 사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70년대 초에 ‘현대과학신서’ 시리즈 70권을 만든 것을 비롯 대중들이 과학을 올바르게 인식토록 하는 작업을 꾸준히 벌여 왔는데, 이번에 이를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하는 송교수는 과학학의 정립과 과학 대중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송교수는 65년 이래 30여 년동안 외국어대,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충북대, 강원대, 한림대 등 17개 대학에서 인문사회계를 위한 교양 자연과학개론을 주로 강의하며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과 사회 등 과학학분야의 강의를 초창기에 대학에 도입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송교수는 또 1972년부터 77년까지 전파과학사 「현대과학신서」에 상임 편집기획위원으로 참여해 과학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문고본인 70권의 과학계몽도서를 직접 추천, 제작에 참여했다. 이후에도 과학과 인간사, 범양사 출판부, 민음사 등의 과학물기획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82년에는 월간 「사이언스」지의 주간, 79년부터 87년까지는 「과학과 기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 과학관련 잡지와 신문의 편집위원 등을 맡아 과학을 소개하는 1천여편의 글을 발표하는 등 과학대중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이런 활동중에 송교수는 과학의 대중화에 뜻을 같이하는 학자, 언론인, 출판인을 규합해 77년에는 ‘한국과학저술인협회’를 창립했으며, 정부의 각종 과학기술정책 수립에도 자문을 맡아 정부가 과학을 올바르게 이해토록 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송교수는 오늘날 인문사회학자 등은 과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과학에 대한 무관심이나 적대감은 위험천만하므로 과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과학이 올바른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과학의 좋은 면만 옹호하려는 경향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송교수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나 과학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반과학주의의 두 극단적 생각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과학의 좋은 면과 나쁘게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간 정부에서도 전국민의 과학화 등 구호까지 내걸며 과학진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자들로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호감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송교수는 “정부가 과학대중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서 현재 과학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비용을 덜 들이고 과학진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안에 과학의 충격에 관한 연구자들의 모임인 ‘과학사회학연구회’를 ‘과학·기술·사회학회(STS)’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송교수는 초창기와는 달리 과학과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져 든든하다는 표정이다. 술을 즐기고, 등산·여행도 즐겨한다는 송교수는 부인(金善坤)과의 사이에 결혼한 두딸(장녀 지연/연대출·독일유학중, 차녀 혜연/고대출·프랑스유학중)을 두고 있다. ⑤7